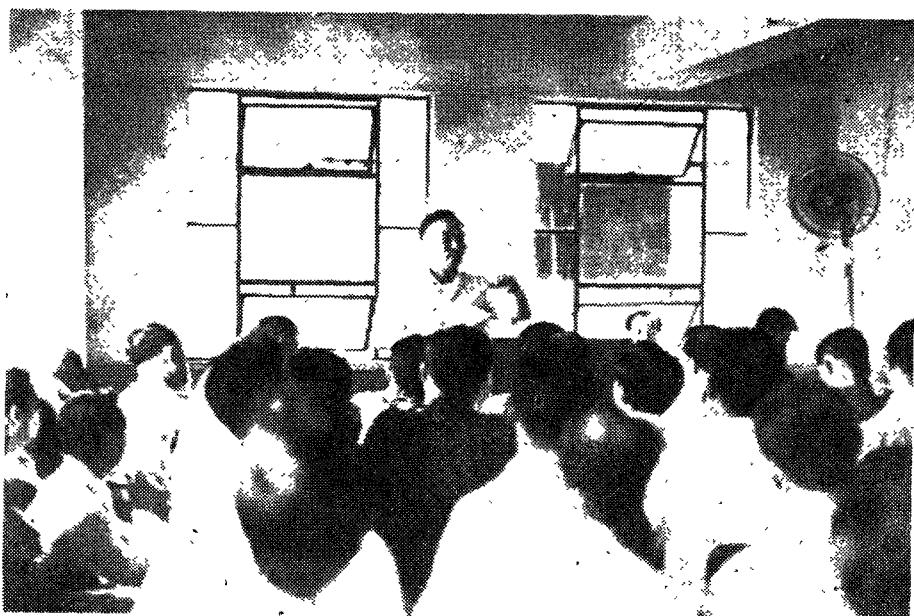


◦특집◦

사료문제



- 미국의 곡류금수 조치(6. 26)
- 미국 곡류 충수예상(7. 10)
- 닉슨의 제 4단계 경제조치(7. 18)
- 우리 정부의 조치

 배합 사료 가격 13.3% 인상(7. 15)

 옥수수 채종 수수 긴급도입(7. 13)

- 사료 대책 협의회(7. 6 사료 협회)

 배합 사료의 현황 가격 추세

 양축가에게 드리는 말씀(7. 12)

- 각계의 의견

- 양계협회의 대책 협의회(7. 7, 7. 23)



대책 협의

기획 르뽀

유상철

미국의 곡류 금수 조치

외신에 의하면 미국의 어느 양체장에서 50,000 마리나 되는 병아리를 술통에 담아 물밑으로 가라 앉힌 일이 있었다 한다. 때마침 TV 카메라가 이 정경을 잡아 생방으로 보도했다. 이 사건은 병아리의 죽음을 애처로와 하는 수많은 TV 시청자들의 항의로 그정도로 그쳤지만 이것은 미국의 심각한 한 단면을 말해주고 있다. 잉여 농산물 처리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던 미국에서 조차 사료가 부족하여 밭이 맑을 정도라면 미국 내 사정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잘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미국정부는 지난 1971년 8월 15일 경제 안정법을 공포하여 앞으로 어려운 상태가 도래 하리라는 예전을 하고 있었다. 또한 미국은 1973년 6월 13일 60일간의 전면적인 물가동결조치를 취하면서 농산물가격만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대신 의회에 대해 농산물 수출제한권을 요청했었다.

따라서 전세계에서는 이에의한 달러화의 환율 투기로 미국농산물에 대한 해외로부터의 수출수요증대는 미국내 재고를 격감시켰고 이에 따라

동결대상에서 제외된 농산물은 물론 식품류를 비롯한 관련 제품의 가격이 급등, 이것이 전체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없지 않았다.

물가동결조치가 내려진지 불과 2주도 채 안되어 지난 6월 27일자로 대두, 면밀 및 그 관련 가공품의 수출금지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 조치는 즉각 전세계 곡류수입국에 파급하여 치명적인 쇼크를 주었고 하루하루가 어떻게 돌아 갈 것인지 전혀 예측을 못하고 있는 상태로 천천히 긍정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다시 7월 5일 선발대로 나온 콩에 뒤이어 41개품목에 대한 전면적인 금수조치를 단행하게 되었다. 이 발표에서 다행히 옥수수는 제외되었지만 또 언제 다시 추가될지 극히 불안한 상태에 빠져 들어 갔다.

이러한 조치를 내리면서 미국은 7월 10일 73년도 수확 예정량을 발표할 것이며 7월 18일 제 4단계 경제조치를 발표할 때 더욱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말하였다. 다행히 7월 10일 발표된 수확예상을 풍작으로 꼽고 있다.

미국 곡류증수 예상

— 지난 7월 10일 미농무성 발표 —

지난 7월 10일 미농무성은 올가을 미국의 옥수수수확이 9%, 밀수확이 13%, 콩수확이 22% 씩 전년도보다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가

축 및 양체사료가 되는 이들 농산품의 수확고는 미국의 고기, 우유, 계란공급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데 이같은 농산품 증수는 증가하는 수출 수



요를 중족시키기 위한 비축고 보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미농무성 수확보고국이 7월 1일자를 기준으로 경작면적에 따른 예년평균 수확고를 바탕으로 계산 발표한 옥수수, 밀, 콩수확 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옥수수

금년에는 도합 6천2백54만8천 에이커의 경작지에서 옥수수가 수확되어 기록적인 59억 뷔셀의 수확고가 예상된다.

작년도에는 5,730만 에이커에서 5,553백만 뷔셀이 생산되었다. 지금까지의 최고 기록은 71년도의 5,641백만 뷔셀이었다.

▲ 콩

수확면적 55,731,000에이커에서 1,588백만 뷔셀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년도에는 4,580만 에이커에서 1,283백만 뷔셀이 생산 되었다.

▲ 밀

예상수확면적 53,588,000 에이커에서 1,749백만 뷔셀의 수확고가 예상된다. 전년도에는 3,490만 에이커에서 1,544백만 뷔셀이 수확되었다.

이 보고서는 금년 옥수수 파종면적이 7,250만 에이커로서 작년보다 9%가 증가했다고 말하고 생산목표량은 60억 뷔셀이지만 악천후로 이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닉슨의 제4단계 경제조치

또한 7월 18일 「닉슨」미국 대통령은 물가와 임금을 안정시키기 위한 제4단계 경제조치를 발표하면서 농산물의 수출통제조치는 신곡이 나오는 9월까지 계속 실시될 것이라고 밝히고, 9월 이후에는 더 이상 수출을 통제하는 것이 불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닉슨 대통령은 「그러나 만일 작황이 크게 나빠지거나 외국에서의 수요가 지나치게 많아진다면 수출통제는 더 계속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정책은 미국 국내에서의 충분한 식료품의 공급을 유지한다는 기본적인 중요성에 의해 항상 결정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 정부가

수출을 규제하고 있는 품목은 콩과 그 관련제품, 우지 등 46개 품목에 이르고 있다. 닉슨 대통령의 연설문 가운데 농산물 수출규제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미국정부는 쇠고기, 가금류, 계란 낙농품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식료품 가격의 폭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콩과 그 관련제품에 대해 신곡이 시장에 출하될 때까지 수출을 제한해오고 있다. 이 수출 조치는 그때까지 단 유효하게 될 것이다. 영구적으로 수출을 통제하는 것은 미국의 정책이 아니며 미국은 현재로서는 수출통제품목을 더이상 확대할 의도는 없다. 수출의 제한은 미국의 외화획득을 감소시



키고 있으며 달려가치를 저하시키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수입코스트를 증대시키고 있으며 그것은 미국국민의 가계비에 영향을 주고 있다. 더구나 농산물의 수출을 제한 하는 것은 해외농산물시장을 확대하려는 미국의 기본 정책에 맞서는 것이 아니다. 만일 현재의 예상 작황이 크게 나빠지게 되거나 외국에서의 수요가 지나치게 많아진다면 수출 통제는 계속해야 할 것

이다.]

이 연설문을 보면 수출통제는 곧 해소 되리라는 전망이지만 마지막 부분의 언급처럼 작황이 나빠지거나 수요가 계속 증대한다면 통제는 계속 필요하게 되어 우리나라의 사료원료 수급 전망을 흐리게 하는 요인이 아직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 정부의 조치

정부는 지난 7일 진급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농산물과 고철에 대한 미국의 금수조치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다음 종전의 수입시장을 다변화 시킴과 동시에 해당품목의 일부 가격 조정도 불가피하다는 것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농수산부는 미국의 농산물 금수조치에 따라 국내 배합사료의 공급사정이 악화될 것에 대비 배합사료의 배합비율을 조정 국산사료 원료를 최대한 활용키로 하는 한편 옥수수의 국제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값싼 수수, 저질의 소맥을 미국 프랑스등에서 도입키로 했다. 또 농수산부는 이같은 배합사료가 배합율 조정 및 저질의 원료사용 확대로 배합사료의 공급사정 및 질이 악화될 것으로 보고 양축규모도 적정선으로 규제할 것을 검토중이다. 농수산부 당국자는 12일 각종 사료원료의 국제시세가 크게 치솟고 있고 수입장벽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사료공급사정이 크게 불안한 상태에 있다고 지적,

사료공급부족에 따른 파동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양축규모의 확대를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농수산부는 지난 7월 13일 미국의 농산물수출제한 조치로 빚어진 사료및 식용유난을 해소키위해 유채 3만톤과 옥수수 18만톤을 긴급 도입키로 했다. 13일 농수산부에 의하면 올해 우지소요량 44,000톤중 미확보분 2만톤을 대체키 위해 유채 3만여톤을 긴급수입키로 하였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채종박으로 대두박의 일부를 대체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수산부는 또 사료대책의 일환으로 옥수수 금년 수요량 616,000톤(74년 이월분 포함), 미 도입분 18만톤 전량을 정부 보유달러로 구매키로 했으며 세계식량난과 미금수조치의 확대 가능성에 대비,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가의 시장현황 파악과 물량 확보를 위한 교섭도 강화키로 하였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농수산부는 지난

7월 15일부로 사료가격을 13.3% 인상할 것을 결정 각 사료공장에서는 인상된 가격으로 사료를 출고시키고 있다.

사료가격은 인상되었지만 사료의 질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한편 농수산부 당국자는 지난 7월 6일 사료협회에서 베푸 사료문제 간담회와 7월 7일 대한양계협회의 사료문제 협의회에서 사료용 곡류의 물량확보는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확보가 가능하지만 가격은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단백질사료의 물량확보책으로 현재의 대두박재고가 9월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10월이후에는 이미 채증박 17,000톤이 확보되어 있고, 현재 톤당 250\$에 수출하고 있는 번데기를 잠정적으

로 수출금지시켜 6,000톤의 번데기 박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려원양에서 계획하고 있는 26,000톤급 어분 생산 모선이 오는 8월부터 조업하여 년 50,000톤의 어분을 공급할 수있으며, 한성실업에서도 8,000톤의 어분을 공급할 수있게 되어 단백질 원료는 계속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파동을 겪고 있는 밀기울의 부족은 백강, 탈지강으로 강력히 대체를 원장하기로 하였다.

또한 현행사료배합 공정규격으로는 위배율이 높아 불원간 공정규격을 개정하는 문제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사료문제 협의회

한국사료협회는 7월 6일 오후 2시 대한양계협회, 양돈협회, 농협, 축협, 종축개량협회, 대한축산진흥회, 농수산부, 시청, 학계 등 28명을 초

청하여 그간의 사료사정을 설명하는 한편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하였다. 이날 참석한 각계의 의견을 보면 다음과 같다.

사료 협회측의 현황 설명

1. 배합사료의 생산추세

1967년부터 본격적으로 배합사료 생산을 시작한 우리나라는 그간 양계사료가 80% 이상 차지하는 양계 일변도였다. 점차로 양계사료의 비중을 줄이고 양돈, 축우사료의 비중을 높이고 있지만 아직도 양계사료 위주이다. 참고로 일본, 미국, 카나다음 미국의 배합사료 생산추세를 보면 29P 표와 같다.

2. 배합 사료 가격 추세

가. 국제적인 배합사료 원료수급현황

1) 사료곡물

• 이 상기후로 인한 흥작으로 품귀현상 유발

• 개발 도상국가의 사료 수요 증대

• 소련의 곡물다량구매(약 277,000톤)와 계속 구매 전망(향후 1,000만톤 이상)

• 종래의 곡물 수출 국가가 항구적 수입 국가로 전락

• 소련, 중공, 인도, 방글라데시, 호주, 남아남미 및 동남아지역의 흥작

• 미국의 72년 산수확기의 강우(수확시기 지연과 품질저하)

• 미국의 홍수로 파종지연과 부진(73년 4월 ~ 5월)

• 내륙지방의 운송시설부족

• 항만선적시설의 부족

• 연료부족과 해상운임 고등

• 미국의 사료곡물 수출제한(6.13조치)

1. 배합 사료 생산 추세

단위 : %

년도별	양계용	양돈용	축우용	기타	계	증가량
1967	87,340 (81)	8,246 (8)	4,579 (4)	7,091 (7)	107,256 (100)	
1968	188,488 (84)	14,671 (7)	7,659 (4)	12,496 (5)	223,314 (100)	116,058
1969	302,712 (82)	26,512 (7)	12,955 (4)	25,339 (7)	367,564 (100)	142,250
1970	459,698 (91)	9,917 (2)	16,012 (3)	21,937 (4)	507,518 (100)	139,654
1971	613,153 (87)	9,917 (3)	33,186 (5)	35,852 (5)	702,110 (100)	194,592
1972	646,238 (83)	48,317 (6)	52,980 (7)	28,791 (4)	776,326 (100)	74,216
1973 계획	700,000 (78)	106,000 (12)	96,000 (10)		902,000 (100)	125,674
1~4 실적	229,830 (82)	22,381 (8)	24,215 (9)	3,499 (1)	279,925 (100)	25,862
일본(71)	55	26	19	—	100	
미국(68)	43	20	31	6	100	
캐나다(68)	34	29	23	14	100	
프랑스(67)	37	35	21	7	100	
덴마크(68)	19	53	27	1	100	
영국(68)	41	21	36	2	100	
서독(67)	43	29	25	3	100	

2) 단백질 사료

- 세계적 단백질 사료 수요증가
- 주요 어분수 출국인 폐루의 어획금지와 1972년 10월부터 수출금지
- 인도의 낙화생감산(30% 이상)
- 소련의 해바라기 감산(30% 이상)
- 소련의 미국산 대두 100만톤 구매
- 국제적인 단백질 사료 수요가 미국산 대두 박으로 전환되어 품귀 현상과 가격昂등을 초래
- 미국의 대두 및 유류금수령(6.26 조치)

나. 외국의 배합사료 가격변동 상황

단위 : 원/kg

사료명	일본			미국			대만	한국		
	72.12	73.4	%	72.8	73.5	%		73.3	72.8	73.5
산란계	44.02	63.89	45.1	33.13	55.04	66.1	68	30.12	49.64	26.9
육용계	51.61	73.78	42.9	39.12	65.12	66.5	83	47.44	60.15	26.9
낙농우	40.06	58.37	45.7	29.20	36.80	26.0		26.26	33.32	26.9
양돈	39.53	57.56	46.1	28.80	40.40	40.3	55	28.34	35.96	26.9

종계등록을 철저히 합시다!!

대한 양계 협회

3. 배합사료원료가격추세

(단위 : %)

구 分		72.7	8	9	10	11	12	73.1	2	3	4	5	6	7~11
도 입 원 료	옥수수	\$61.70 100	96.3	96.3	96.3	113.5	113.5	113.6	113.6	155.1	155.1	155.1	155.1	\$130 210.6
	대두박	135.75 100	102.9						206.2					\$450 331.4
	어분	228 100	100.4							124.0	139.4			570 250.0
국 내 원 료	어분	77 100	100	103.8	107.3	116.8	116.3	116.8	121.2	145.4	155.8	142.8	146.7	130 168.8
	대두박	54 100	100	102.4	102.4	113.8	113.8	113.8	113.8	209.2	209.2	209.2	209.2	120 222.2
	채종박	38 100	120.2	120.2	134.2	139.4	142.2	144.1	150.3	184.2	197.3	192.1	215.7	85 223.6
	임박	48 100	96.7	104.1	119.0	120.8	120.8	120.9	127.4	166.6	181.2	193.7	197.9	100 208.3
	호마박	47 100	100	100	114.8	117.0	123.4	123.4	131.0	170.2	185.1	202.1	202.1	100 212.7
	소백피	14 100	100	100	100	107.1	107.1	107.1	107.1	109.2	109.2	109.2	150	22 157.1

1. 도입가격 : C&E당가격(\$)

2. 국내원료가격 : kg당 가격임(원)

3. 기준 : 1972年 7月 가격기준

4. 73.7~11월 가격 : 오퍼 가격임

배합사료원가구성

원료명	8/3 조치		26.9%		73年6月현재				비고	
	배합율	금액	배합율	금액	도입원료인상감안		인상요인감안			
					배합율	금액	배합율	금액		
옥수수	61.3	17,594	61.3	25,862	56.0	24,543	56.0	24,543		
기타곡류	2.4	649	2.4	649	7.7	2,083	7.7	3,080		
대두박	7.3	4,015	7.3	6,026	7.3	8,175	7.3	8,175		
기타박류	3.6	1,304	3.6	1,304	3.6	1,304	3.6	2,988		
장류	11.9	1,512	11.9	1,512	11.9	1,512	11.9	1,829		
어류	6.4	5,401	6.4	5,632	6.4	5,632	6.4	8,190		
기타동물성	1.1	586	1.1	586	1.1	586	1.1	1,100		
광물성	5.08	229	5.08	22.9	5.08	229	5.08	229		
첨가제	0.72	1,858	0.72	1,858	0.72	1,858	0.72	1,858		
기타	0.2	52	0.2	52	0.2	52	0.2	52		
계	100	33,200	100	43,710	100	45,974	100	(52,044)		
제조및관리비		4,064		4,064		4,064		4,838		
이윤		1,658		1,658		1,658		2,844		
조세공과		195		239		250		299		
계		39,117		49,671		51,946		59,239		
8/3 조치효과	+	0		△31		△31		△31		
%		39,117		(49,640)		51,9156		60,025		
		100		126.9		132.7		153		

정확한 초생추출하보고, 양계 안정 약속한다.

배합사료 가격 인상 범위

종 별	8/3조치 가격	10.9% 가격	26.9% 가격	13.3% 가격
어린병아리	45.33원/kg	50.27원/kg	57.52원/kg	65.17원/kg
충병아리	39.01	43.26	49.50	56.08
큰병아리	34.25	37.98	43.46	49.24
산탄초기	39.12	43.38	49.64	56.26
" 중기	36.61	40.60	46.46	52.63
" 말기	33.82	37.50	42.92	48.62
부로일터전기	47.40	52.56	60.15	68.14
" 후기	45.33	50.27	57.52	65.17
양돈용	28.34	31.43	35.96	40.74
유우용	26.26	29.12	33.32	37.75
비육우용	28.75	31.88	36.48	41.33

한국사료협회 유윤수 부회장은 3개 대사료공장의 원료확보가 8월 25일경 까지 밖에 안되고 그 이외의 대부분 사료공장도 9월 중순까지의 원료밖에 확보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사료협회는 원료의 긴급 확보를 위해 7월 7일 육수수 20,000톤을 133불에, 수수 200,000톤을 120.5불로 구입하여 10월까지의 원료 대책을 해결하는 한편 가격은 고하간에 살수 있는 원료는 계속 확보하여 절대로 양축가에게 공급의 부족을 초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부회장은 양축가에게 “심각한 현실을 이해하고 서로 협조 협력하는 것 만이 문제 해결의 첨경일 것”이라고 피력하고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였다.

1) 배합사료 원료확보.

가. 긴급대책

- 원하는 사료를 즉시 결제할 수 있도록 KFX 달라 배정과 함께 긴급 원화배정이 시급하다.
- 즉시 대미 교섭단을 파견하여 금수 조치를 완화하도록 해줄 것.
- 대치품을 능동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해줄 것.

나. 항구대책

- 정부는 예산을 세워 선매제도를 강구하여 앞으로 필요한량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조치하여 줄 것.

- 관세면제 절차를 간소화하여 줄 것.

2) 배합사료의 품질관리

가. 긴급대책

- 년말까지 배합사료 공정 규격을 확대, 축소,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줄 것. 그에로 조단백질의 기준율을 인하하여 저단백 저열량 사료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조지방은 삭제, 조섬유, 조회분은 어린가축사료에만 적용하는 안을 검토 할 것. Ca함량은 반대로 강화시키는 것 이 좋다고 본다.

- 사료의 명칭에 융통성을 두어 주문배합사료와 농축사료 개발을 장려해 줄 것.

이 외에도 축산물 가격의 적정화로 양축가가 적자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정부에서 최고 최저가격을 조사 공포해 줌으로써 부당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힘써줄 것을 전의하고, 또 폭류 별로 최고 사용 한계를 정하여 일부 원료가 집중적으로 쓰이는 일을 막아달라고 하였다.

유부회장은 최근 밀기울 과동에 대하여 사료협회와 제분 협회의 계약으로 매월 35만가마(36kg 들이)를 우선적으로 사료공장에 배정하기로 했으므로 앞으로는 소맥피의 기준은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봤다.

사료공장과 사료협회측은 배합사료가격 13.3% 인상 전후하여 다음과 같은 담화문을 양축가에게 전달하였다.

양축가에게 드리는 말씀

한국사료협회 및 회원일동은 배합사료의 유통 원활(圓滑)과 가격 안정으로 여러분이 경영하시 는 축산업이 계속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아래 와 같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1. 한국사료협회에서는

○ 배합사료가 원활히 생산공급(生產供給)될 수 있도록 기(既)히 12월 말까지 사용될 원료를 구매(購買)하였으며 계속 구매하고 있읍니다.

○ 이유없이 배합사료를 제한 생산하는 공장에 대하여는 원료공급을 제한 하기로 하였읍니다.

○ 성실(誠實)한 양축가의 배합사료 구매를 보장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2. 배합사료 공장일동은

○ 배합사료를 계획량(計劃量) 책임 생산하겠

습니다.

○ 기거래 양축가(既去來養畜家)에 대한 배합사료 공급책임을 지겠습니다.

○ 보증성분량(保證成分量) 이상으로 제품질을 보장하겠습니다.

3. 양축가께서는

○ 기 거래 공장과 계속 거래하여 주시기 바라며

○ 거래 공장이 이유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거부할 때에는 한국사료협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돈(養豚) 및 축우사료(畜牛飼料)는 강류유통 사정(糠類流通事情)으로 농축사료(濃縮飼料)를 생산하게 되오니 병용(併用) 또는 대용(代用)하시기 바랍니다.

각계의 의견

양돈협회장

요즈음은 심각한 사료구득난에 빠져있다. 현금을 가지고 사료를 사기 위해서 여기 저기 여러 공장을 돌아서 겨우 구할 수가 있다. 특히 양돈 사료에 많이 쓰이는 소백피는 정말 구하기가 힘들다.

사료공장은 공급제한을 하루빨리 완화해 주기 바란다. 장기 대책으로는 발효사료를 개발하여 배합사료 생산량은 근본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박승만 카길사장 :

사료를 제한판매하는 것은 사료공장이 적자이

기 때문에 만은 아니다. 공급을 제한하고 있지 만 전체량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의 사료공장이 2개월 분 밖에 원료를 확보하고 있지 못한데 원하는대로 다 주면 보통만에 떨어지게 된다. 보통후에 완전히 떨어지는 것보다 약간씩 제한하여 더 끌고 나가는 것이 양축가를 위해서도 더 좋다고 본다. 양축가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수수를 무리하게 늘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오봉국교수 :

외국은 앞으로 1~2년 앞까지의 대책은 확보된 것으로 아는데 우리나라는 한 달 두 달 앞으로 닥

친 문제에 대하여도 해결책이 없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전문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제안한다.

박영수 축산진흥회 부회장 :

눈앞의 문제는 눈앞의 문제대로 시급히 해결하고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국내산 원료의 사용을 개발하고 목야지를 개발하여 자급화율을 높혀야 하다.

바로전에 유부회장께서 공정규격의 완화를 요청하였는데 이럴 때일수록 공정규격을 완화할 것이 아니라 더욱 강화하여 품질보증에 힘써야 할 것이다.

한인규교수 :

지금같은 난관을 극복만 한다면 우리의 축산업은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미국은 전세계 가경면적의 1/16을 차지하고 옥수수 수확량은 전세계의 1/2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전세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단지 얼마나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느냐가 우리의 해결책이라고 본다. 축산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정부나 관계처에 지원을 받을 일을 엄격히 구분하고, 축산인 전체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기구를 형성하는 것이 선결조건이라고 본다.

박영인 미사료곡물협회차장

미국의 내년도 작황은 사상최대가 될 것으로 예견되어 앞으로의 사정은 다소 호전될 것으로 예

상되나 일본, 자유중국등은 1974년 분까지 이미 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호전된다 하더라도 계속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본다.

참고로 대량소비국의 작황과 수입추세를 보면 다음과 같다.

소련 : 소련의 금년도 작황은 호황으로 밀이 1,000만톤 증수 예상되나 내년도 밀과 옥수수 수입량이 1,500만톤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공 : 중공의 작황은 좋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내년도에 미국으로부터 밀 250만톤과 옥수수 100만톤을 수입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 금년 5월까지 옥수수 250만톤으로 작년 동기간에 비해 3배, 수수는 120만톤으로 작년동기에 비해 4배를 이미 수입하고 있다. 일본은 사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북미, 남미, 구라파, 호주, 아시아 등 5개 지역에 조사단을 파견하여 원료를 확보하고 있다.

대만 : 지난 4월에 조사단을 미국으로 파견하여 총 180만톤, 소麦 210만톤, 옥수수 135만톤, 보리 175만톤 등 총 550만톤을 이미 계약 확보하여 앞으로 3년간의 원료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오세정 양계협회 부회장

다른 축산 어느 분야보다도 양계분야의 타격이 심하다. 사료공장은 공급제한을 즉시 철폐하여 막이 끊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고, 사료공장 혹은 현재 사료품질을 정확히 제시하여 양계인 스스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원하는 양계장에는 농축사료, 주문배합사료를 공급해 주어야 한다.

양계 협회의 대책 수립

대한양계협회는 7월 7일 대책 회의를 소집하고 각계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양계인으로서 할 수 있는 대책으로 생산조절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7월 16일에는 이사회와 아울러 전국 부화업자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전국부화업자대회와 이사회에서는 생산조절의 방법으로 부화장에서의 결연적인 입란 중지를 결의하고 그 실행

방법을 양계협회 이사회에 위임하였다. 이에 대하여 양계협회는 농수산부 당국자와 협의하는 한편 7월 23일 최종적으로 대책을 수립하여 전 양계인에게 주지시키고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필용 양계협회 부회장

최근 심각한 공급란에 봉착하고 있는 원료 특

히 밀기울의 배정을 긴급히 하여야 하며, 사료가격 인상에 따라 축산물 가격도 상승하여야 한다. 축산물가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생산조절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오세정 양계협회 부회장

생산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 GPS에서 PS가 얼마나 나오는가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는데 현재 GPS로부터 PS를 생산하는 기준은 부로일려가 25수, 산란계가 40수로 되어 있다. 또한 종계등록사업도 금년부터 철저히 시행하여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앞으로의 수급조절 지침을 만들겠다.

유 황

생산조절을 위하여 입란중지를 한다면 전 부화업자가 일치 단결하여 실시해야 하며 그 시기는 7월 20일부터 시작 부로일려가 kg당 360원 계란이 18원 할 때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양계협회는 대책수립을 위하여 연일 심사숙고한 결과 생산조절은 사료공급이 원활하지 못한데다가 13.3%의 가격인상으로 인하여 양계산물의 원가는 계란 14.90원에서 16.28원으로 인상되었고 부로일려가 241.45원에서 263.30원으로 오르고 있으므로 양계산물의 적정가격을 유지하고 양계인 스스로 생산조절을 함으로서 양계인의 단합을 촉구하며, 부족한 사료의 수요를 감소시키는데 있는 것이다.

생산조절의 방법으로는

가. 자율적인 규모축소: 자율적으로 자기 능력에 맞게 적정수만을 입식시켜서 무리한 경영에서 탈피하고 스스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나. 노폐계의 조기 도태

산란율이 낮은 노폐계를 조기에 도태시켜 사료 수요의 감소를 빼하고 계란 가격을 적정선으로 유지시킨다.

다. 입란조절

부화업자들의 결의에 의하여 산란계, 부로일려의 입란을 전면적으로 중단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난 7월 23일 양계협회 이사회에 정부 관계관을 초빙 연석회의를 실시한 결과 강제성을 떤 입란조절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자율적인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지도계통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

1) 입란중단으로는 사료를 절약하기 위한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이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료원료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아 입란중단의 명분이 뚜렷하지 못하다.

2) 육계의 경우는 계속 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며, 계란은 비성수기이긴 하지만 국민의 필수 영양 식품으로 인위적으로 접단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끼쳐 불안조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것은 진정하게 양계인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3) 그간 사료량이 부족하고 가격이 비싸고, 질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으므로 양계인 스스로가 육추를 중지하여 충분한 양만큼 자연 조절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4) 입란조절로 인하여 각 부화장에 일률적인 피해를 주게되고, 부화장간의 이해가 상반될 수 있으므로 통일된 상태에서 생산조절을 이루기가 어렵다. 또한 일치 단결이 안되어 실패할 경우에는 후유증이 심하여 업체는 상호 불신풍조가 생길 것이다.

5) 입란조절이 이루어질 경우 노폐계의 도태기간이 연장되어 사료의 수요증가를 초래할 것이고, 입란조절이 결정되면 각매스컴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므로 양계산물의 급격한 가수요가 생길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를 들어 정부 양계협회 연석 회의에서는 자율적으로 생산을 조절할 수 있도록 지도 계통하기로 하여 양계업의 안정화에 앞장서기로 하여 양계업의 방향을 정도(正道)로 이끌어 가는데 기여하고 있다. 차제에 사료공장 측에서도 사료의 제한 공급을 철폐하고 인상된 가격만큼 질을 개선하여 양계산업의 안정화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 □□